

buddhanews.com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뇌주는 그 사랑이 멋진 사랑

25면에서 계속

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전체의 스위치는 따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이나 뭐다, 이 전구다 저 전구다 따로따로 생각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 저 마음의 주인공과 들어야 아니 까닭에 이끌어 주고 또 집에 들어오게 하겠지.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믿을 게 없어. 내가 누구 믿어? 허공을 믿어, 이름을 믿어?' 하고 진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아프고 죽고 하는 그 다섯 가지는 누가 대신 못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주인공에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이렇게 묶는 것은... 아, 여러분이 살면서 겪어 보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교자상 하나를 차려 놓고요, 몇 분만 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 초대받지 못한 분이 노하셨단 말입니다. 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띠 데서도 또 '요놈, 두고 보자' 이러거든요, 허허하...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그릇 놓고 전부 청하자. 그러면 뭐, 날 나쁘다 좋다, 될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그쁜 것들... '한마음' 해 놓고 '주인공' 하면 한마음이 모여서 기둥이 돼 가지고 하늘을 꿰고 땅을 디뎠는데 뭐가 떨어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떨어 납니까? 이사를 잘못해서 떨어 나고 뭐가 잘못해서 떨어 나고 조상이 잘못해서 뭐가 어쩔고, 뭐가 떨어 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도리를 실천 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안 들어온다 누가 안 들어온다 이러는 것도 말로 하지 말고 '내 한마음 주인공만 이 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남편도 안되결랑. '한마음 주인공만 이 우리 남편을 이끌어 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놓으세요. 그렇게 안으로 찾는 것은 공덕이 되지만 바깥으로 아무리 돈을 놓고 기도를 해 보고 해 보세요, 공덕이 되나. 달마 대사가 양 제제더러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기도로는 아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모두, 한번 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다면 내가 머털 왜 깎아요? 네? 내가 곱이 비었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할 거를 아, 지금 진실한 말만 해도 다 못할 텐데, 아니 왜 가져 짓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곱이 빈 것입니까. 그리고 괴롭고요. 돈 벌러니 괴롭고, 돈 봉창에 넣으려니 괴롭고, 넣으면 넣은 대로 괴롭고, 아이구, 이거 얼마나 곱 빈 것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참, 여러분한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살아라. 거기밖에 해결할 수 없다. 거기밖에 감사한 데가 없다.' 이러는 것은 '재산을 버려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

야 합니다. 누가 돈을 다 버리라고 했나요? 올바른로 쓰는 것이 법기보다 더 어렵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같이 가져주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쓸 데 다 쓰고 적절히 산다 이겁니다. 손을 펴고 으르릴 줄 모르면 반병신 이죠? 또 주먹을 쥐었다가 펼 줄을 모르면 또 반 병신입니다. 폼다 쥐었다 폼다 쥐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줄 알아야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고요, 불자! 뭐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불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불(佛)이니까, 바로 여러분 몸은 '자(子)'니까 불자지오, 불자. 그대로 불자네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오. (대중 박수) 손바닥 치려고 하지 말고요, (가슴을 짚으며) 마음, 이거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손바닥 치면 나는 좋아요. (대중 박수)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여러분

설하신 그 골수의 뜻을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경을 말합니다. 뭐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능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내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또 태어나서 또 읽고 또 태어나서 또 읽어도 끝이 없어요. 경구를 가지고는 생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사명 대사가 새를 잡아 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은 다 아시죠? "내가 이 걸 놔 주겠습니까, 안 놔 주겠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서산 대사가 문지방을 척 양쪽을 닫고 서서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한 다리는 바깥으로 닫고 한 다리는 안으로 디뎠는데 '안과 밖이 둘이 아니어서' 하는 거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갈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저리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자유스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고정되지 않았죠. '나가야만 한다' 하

니까 여러분은 마음 보배가 능히 이 세상을 다 쥐고도 남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만공봉의 연꽃은 부처님의 설이지만, 깊은 물의 용무는 그저 한바다를 들어키고 토하고 들어키고 토하고, 내고 들이는 데에 그것이 바로 문수, 법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소립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법이 되고, 마음을 내면 몸은 움직여지는 거니까 화신이죠. 자꾸 변동해 가면서 움직여지니까요.

그래서 변동해 가면서 움직여지면서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보현 아님니까? 왜 따로따로 보십니까? 자신도 나오 웅신도 나오,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닦히는 대로 바로 나 아닌 게 없습니다. 신중도 나오 약사도 나오 부처도 나오, 모두 나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한 거죠,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무

될 수 없죠. 장관을 해먹으려고 부모를 때문에 못 해먹게 되는 수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진실히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여자가 나가서 난동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보, 좀 피곤하셨겠소. 그러니까 이거나 잠깐 보쇼." 그러고선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니, 꽃이 많은데 말이오, 나비가 한두 군데 뭐, 이쪽저쪽에 가서 있는데, 그것도 풀 때문에 그러는 거지 풀이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지요, 네. (대중 웃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버리고, 다 훌쩍 내버리고 뚝까지도 내버리고 갑니다. 더우면 시원한 것, 추우면 따뜻한 것 잊혀 가면서 잊어 주면서 발라 주면서 온몸 쓰다듬고 했는데 몸이 자기 쫓아가면가요? 안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다 벗고 갈 몸뚱이, 한 발 한 발 디딜 몸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나 잘하세요, 허허하...

요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는 강릉거리, 또 자식과 부모 강릉거리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딪치지... 아, 소리가 얼마나 나오, 강릉이? 넘마는 넘마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공심은 데 공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오. 그러니까 만날 까리끼리 만나죠. 그러니까 누구 탓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은 은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나고 넘마는 넘마대로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판사판이요. 어차피 그럴 일이라면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그러세요. 그 까짓 거 얼마나 살다가 갈 거라고 그렇게 애탄지 탄 털그림대며 살아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뇌주는 그 사랑이 멋진 사랑이죠. (대중 박수)

아이구, 한 시간이 넘었네요? (대중 웃음) 이 더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기 위해서 선풍기도 이쪽에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나만 시원해야 합니까? 나는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좀 나는데 여러분은 같이 그렇게 끼어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절대 믿질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해 하면 위로는 조상의 목은 빛을 값을 짓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 그렇게 극대고 그러다면 여러분의 목은 빛도 값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주!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갑사합니다. (대중 박수)

※ 위 법문은 1991년 6월 28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의 조사들, 천백억화신들, 일체제불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서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은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듯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 그게 본래자성불이라는 겁니다. '내 한마음의 주인공만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복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병고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닳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고서 감사한 것도 거기도 모두 거기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가시다 보면 바로 감사하다고 할 놈도 없고 감사를 받을 놈도 없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서없이 말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하하...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생각은 있겠죠.

발이 많이 달린 돈벌레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걸림 없이 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다리가 많은데 이날까지 걸림 없이 다녔거든요. 하하하... 그런데 그 돈벌레가 "다리가 이렇게 많으니가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게끔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이거는 모두가 한 다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가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요것조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마음',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한마음 주인공' 이라든 합니다. 그러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49년

는 것에 매어 놓지도 않았고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에 매어 놓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쥐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퍼려면 퍼고 쥐려면 쥐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알고 넘어갈 수 있다면, 편다 친다 이런 거는 그냥 놓고 이걸 덮고 거를 삼아, 친다 편다 이런 거를 그냥 거들 놓고 그 자리를 덮고 넘어서는 거라야만이 생사를 넘어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꿈도 생기고 생시도 꿈이나, 그 꿈도 꿈이요 생시도 꿈이나 그걸 그냥 덮고 넘어서는 그런 자체가 돼야만이 바로 눈 뜨고 열반을 하는 거죠.

어때요?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부딪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한마음에서 만약에 촉각이나 미각 같은 감각, 지각, 모든 게 한데 합쳐서 움직여진다면... 내가 아가 얘기했죠? 원자에서 입자가 돼 가지고 분자로 해 가지고... 예전에 박 부인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노간주나무 이파리를 하나하나 군사로 다 만들었대요. 어때요? 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두루 한다는 그 점 말입니다. 그 점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도 그 비밀 번호 하나만 있어버리면, 편 놀이 탁 채어 가면 그뿐이예요. 그러

(無)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공했다고 색과 공은 들어 아니니라 했던 겁니다.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불교를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를 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들 가지고 있죠. 나도 그렇고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교입니다. 지금만 말합니까? 금방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아, 내 배고파. 더워. 뭐 시원한 것 좀 줘!" 하고 서로 말하는 게 교(敎)죠. 그리고 화목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은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길러주세요. 어디 나가실 때는 냉장고 문에다가 편지를 붙여 놓고 가 보세요. 종이에다 뽀뽀를 해 가지고 "아무개야, 널 사랑해.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놓은 거 꺼내 먹고 너 요렇게 요렇게 있어." 그러면 그 글을 읽고는 "호호호, 엄마도!" 그러고선 이탈되지도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주 착실하고 즐겁게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쓰신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붙여놓아 주지도 않고, 뿌리를 상실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만날 일만 볼 들고 가지만 볼 들고 흔들려 봤자 낙엽만 지죠. 그냥 화가 난다고 가지를 꺾어 버리고 이파리를 때면서 온통 야단을 하니까 그 자식은 그렇게밖엔

“원인을 알면 막힌 일이 풀립니다.”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기도하시면서 몸소 보고, 듣고, 체험 하십시오

- * 소송은 우리들의 몸(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맑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향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영가 천도제) 전문 기도 도량 <관세음 보살님 천견 스님이 천도제 기도 집전>

•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	• 이사 후 사건, 사고 잦으신 분(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 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병원 치료 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애가 있는 분
• 빙의되어 정신이 흐리거나 몸이 아픈 종교인 상담 해 드립니다.	

※ 각종 시험에 계속 낙방 하시는 분 →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득점 대입합격

- ◆ 본 사찰에서는 영가 천도 기도중에 향 연기와 풍경(비람)소리로 영가 천도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부처님의 법은 대자연이며 그 법을 만난 인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미술 행화 사사수행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비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할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김병룡)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중로구 적선동 19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737-9456